

교세라, 스마트폰에 이상적이며 업계에서 가장 용적효율이 높은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LCC) 개발

MLCC 신제품은 케이스 크기가 각각 0201과 01005이면서 정전용량이 4.7 μ F와 0.47 μ F로 세계 최대

교토, 일본--([BUSINESS WIRE](#))--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Corporation)(뉴욕증권거래소: KYO)(도쿄증권거래소: 6971)이 오늘 스마트폰을 포함한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업계에서 정전 용량(capacitance)이 가장 큰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MLCC)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케이스 크기가 0201 인 4.7 μ F MLCC 와 케이스 크기가 01005 인 0.47 μ F MLCC 신제품은 기존의 0201 및 01005 MLCC 와 크기가 같으면서도 정전 용량이 2 배이어서 작은 공간에서 통신기기가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들 두 신제품은 2016 년 10 월부터 샘플 기반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0201 크기의 MLCC	01005 크기의 MLCC
제품명	CM03X5R475M06A	CM02X5R474M06A
규격	0.6×0.3×0.3mm	0.4×0.2×0.2mm
특성	X5R (EIA[미국전자공학회])	X5R (EIA)
정전 용량	4.7 μ F	0.47 μ F
Tolerance	M (±20%)	M (±20%)
정격전압	6.3V DC	6.3V DC
생산시설	가고시마 고쿠부 공장(일본)	가고시마 고쿠부 공장(일본)

개발 배경

정전용량이 더 큰 MLCC 를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고성능, 다중대역의 통신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이러한 기기에 내장되는 MLCC 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능이 더 우수하고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제조 업체들은 배터리 공간을 줄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수의 부품을 내장해야 한다. 그 결과, 엔지니어들은 이들 기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0201 및 01005 케이스 크기에 더 큰

용량의 MLCC 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급증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한다.

제품 특징

첨단 MLCC 의 크기가 기존 제품과 같은 0201 및 01005 이면서 정전 용량이 두 배 이상 됨에 따라 고객사들이 기기에 내장되는 부품의 수와 공간을 줄여서 기기를 소형화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 교세라는 자체의 나노소재 기술과 고도로 정확한 공정 기술을 적용하여 두께를 얇게 한 유전체로 안정된 다층 구조를 만들어 이러한 규격의 MLCC 중 세계 최대의 정전 용량을 달성했다. 교세라는 신뢰성이 높은 기기에 사용되는 고용량 MLCC 를 개발하여 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교세라가 실시한 조사연구 결과(2016 년 9 월 현재)

교세라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global.kyocera.com/prdct/electro/index.html> 참조.

교세라(Kyocera) 개요

교세라그룹의 모회사이며 글로벌 본사인 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Corporation)(뉴욕증권거래소: KYO)(도쿄증권거래소: 6971)은 1959 년에 파인 세라믹스(‘첨단 세라믹스’라고도 함) 제조업체로 설립됐다. 교세라는 이러한 Engineering 소재를 금속과 결합하고 이를 다른 기술과 통합함으로써 전자부품, 반도체 패키지, 모바일폰, 프린터, 복사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절삭 공구, 산업용 세라믹스 등의 선도적 공급업체가 됐다. 회사는 2016 년 3 월 31 일 마감된 회계연도에 총 1 조 4800 억엔(약 131 억 달러)의 순매출을 기록했다. 교세라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2014 년과 2015 년에 선정한 ‘세계 100 대 혁신기업’에 들었으며 ‘포브즈’(Forbes)지가 평가한 ‘글로벌 2000’ 상장기업 순위에서 2016 년에 531 위를 차지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cgi-bin/mmg.cgi?eid=51427989&lang=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언론문의처

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Corporation)(일본)

도이 나츠키(NatsukiDoi)

홍보실: +81-(0)75-604-3416

Fax: +81-(0)75-604-3516

webmaster.pressgl@kyocera.jp